

칸딘스키의 Blue, Red, Yellow와 ○,□,△의 관계성 이론에 대한 동양적이해

An oriental cognition of Kandinsky's art theories about forms and colours

박인찬

충청대학 산업디자인과

Park, In -Chan

Dep. of Industrial Design, Chungcheong College

● Keyword : Kandinsky's art theories, forms (circle, square, triangle), colours (blue, red, yellow), the cosmic dual forces and the five elements (metal, wood, water, fire, and earth)

1.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어언 한 세기가 지나가는 지금 과거의 이론을 되짚어 보는 것은 과거 연구자의 노력에 대한 후학으로서의 바람직한 관심이 될 수 있으며, 어떤 이론이든 계속적으로 연구되고 심화되어 질때 그 가치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다.

본 연구는 한때 디자인 영역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칸딘스키의 형태와 색채에 관련된 이론에 대하여 동양적 사고의 바탕에서 뿌리를 내린 음양오행사상의 이론을 토대로 하여 해석하고 비교해 봄으로서 과거의 이론을 여러 관련 연구성과를 접목시켜 한번 더 새롭게 인식해 보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칸딘스키의 색채(청, 적, 황)와 형태(원, 정방형, 삼각형) 간의 관련성 이론은 그 당시의 '1+1=2' 라는 과학적(정량적) 사고에 의한 이론이 아닌 '1+1=완성' 이라는 비과학적 사고에 의해서 성립시킴에 따라 그 원리가 잘 해석되어지지 못해왔음을 인식하고, 그 '1+1=완성' 이라는 사고는 동양의 자연주의적 사고에 의한 이론인 음양오행사상의 상극작용을 이해함으로써 인식 되어 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다.

2. 칸딘스키의 청, 적, 황 과 ○□△의 관계성 이론

2-1. 관계성이론

●■▲시리즈는 색과 기하학 사이의 보편적인 상호관계를 증명하려는 칸딘스키의 시도를 보여주고, 그것은 바우하우스의 가장 유명한 아이콘이 되었다. 칸딘스키는 이 색과 형태를 대립 시리즈로 지각했다. -노랑과 파랑은 뜨거움/차가움, 어두움/밝음, 적극적/소극적의 극단을 재현하고, 빨강은 둘 사이의 중개자이다. 삼각형, 사각형, 원과 같은 양극성의 그래픽 등가물이다...

다음 도표1은 "총합은 구성요소들이 균형을 잡는데 빠져 있는 부분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칸딘스키의 ●■▲공식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면	구성요소	총합은 제3의 원천적인 색을 낳는다.		
삼각형	수평선	대각선		
	흑색=청색	적색		황색
사각형	수평선	수직선		
	흑색=청색	백색=황색		적색
원(○)	능동적=황색	수동적=적색		청색

도표 1 칸딘스키의 관계성 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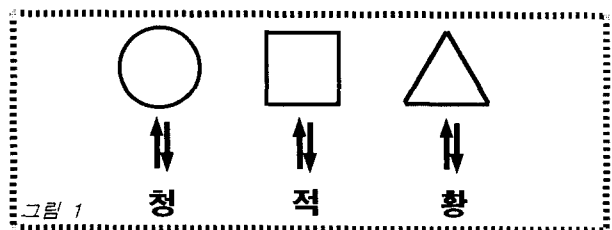
2-2. 심리조사

1923년 칸딘스키는 바우하우스에서 질문서를 돌렸는데, 내용은 응답자들이 청, 적, 황을 가지고 ○□△안을 기본적으로 매우는 것이다. 그는●■▲공식에 색과 형 사이의 구체적인 조응관계를 과학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칸딘스키는 자신의 질문서와 통하는 놀랄만한 일치감을 얻었다. -부분적으로는 바우하우스의 다른 회원들이 그의 이론적 이상을 지지했기 때문일 것이다. 시각의 언어로 쓰인 기본 문장인 ●■▲은 칸딘스키 앙케이트 기간 동안 바우하우스의 많은 대상과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었다. 즉, ●■▲공식은 20년대 초기에 피터 켈러(Peter Keler)가 디자인한 어린이 요람과 허버트 바이어의 벽화를 위한 제안을 포함해 상당수의 프로젝트에 영감을 주었다.

결과적으로, 시각의 언어로 쓰인 기본 문장인 ●■▲은 직접적으로 눈과 뇌의 역학과 소통하고, 독립적으로 문화적, 언어학적 관습에 적용하게 될 시각 "언어"의 가능성을 상징하게 되었다. 오늘날 ●■▲의 보편적 가치에 대해 논쟁하는 디자이너는 거의 없으나, 지각에 기초를 두고 있는 '시각언어'의 문법과 요소들을 정의하기 위한 시도가 1940년대 이후의 모더니스트 디자인 교육에 정보를 제공했다.

3. 칸딘스키의 청, 적, 황 과 ○□△의 관계성 이론에 대한 동양적이해

3-1. 칸딘스키 이론의 "1+1=완성"의 개념



칸딘스키는 면-색채에 대한 연관성을 두 방향의 화살표(↔)를 사용하여 표현 하였는데, 이것은 '원과 청', '정방형과 적', '삼각형과 황'의 각각의 대상물간의 내적인 관계를 동일함으로 인식하지 않고 '유기체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그는 "총합은 구성요소들이 균형을 잡는데 빠져 있는 부분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한 것 처럼 대상물간의 관계를 완성을 위한 서로 보완적인 입장에서 해석하고 완성을 위한 결합의 의미를 두 방향의 화살표(↔)로 나타낸 것이다.(그림 1 참고) 이것은 하나 하나의 구성요소의 결합은 총합 즉, 완성을 위한 균형을 이루는 작용을 의미한다고 할수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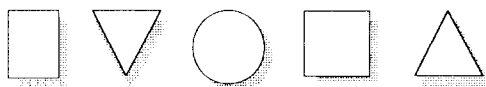
3-2. 음양오행의 상생, 상극, 상화작용과 “1+1=완성”의 개념

● 음양오행의 형태와 색채체계

음양오행의 원리는 우주의 5행성의 기운을 받아 지구의 만물이 시공간적으로 여러 가지 특성을 부여받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우주만물의 하나로서 개인별로 얼굴형과 얼굴색에 목, 화, 토, 금, 수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아래 도표2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오행성 -----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
생성된 기운----	목기	화기	토기	금기	수기
기운을 받은 장부-	간, 담	심, 소	비, 위	폐, 대	신, 방
장부에 따른 얼굴형 -----					
장부가 약할 때의 얼굴색-----	靑	赤	黃	白	黑
	blue	red	yellow	white	bla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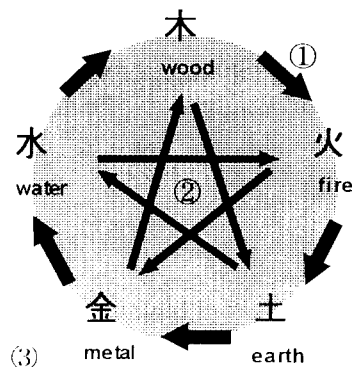
도표 2. 오행성 기운과 인간에 대한 영향



靑 赤 黃 白 黑
blue red yellow white black

(인간의 얼굴형과 얼굴색을 형태와 색채로 응용)

● 상생, 상극, 상화작용



- ① 상생(相生)작용
-화살표 방향으로 도움을 주는 작용-
- ② 상극(相剋)작용
-화살표 방향으로 견제하는 작용-
- ③ 상화(相和) 작용
-상생 상극작용이 원활히 조화를 이루는 작용-

● “1+1=완성”의 개념

다음의 그림2는 목, 화, 토, 금, 수 각각에 해당하는형과 색을 상화작용의 원리에 대입하여 번호 ②에 해당하는 상극작용의 원리에 입각하여 화살표 방향으로 대상물간에 견제하는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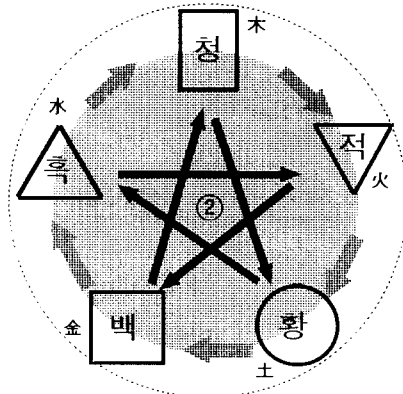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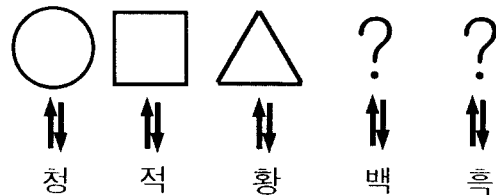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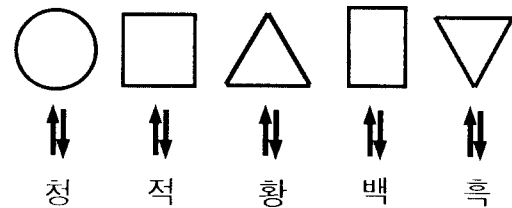
그림 2. 형태와 색채의 상극작용

목극토의 원리는 ‘장방형/청색과 원/황색’, 토극수의 원리는 ‘원/황색과 삼각형/흑색’, 수극화의 원리는 ‘삼각형/흑과 역삼각형/적색’, 화극금의 원리는 ‘역삼각형/적색과 정방형/백색’, 금극목의 원리는 ‘정방형/백색과 장방형/청색’의 극의 관계로 형성된다. 여기서 밑줄친 부분의 내용을 보게되면 칸딘스키의 이론과 일치하고 있음을 볼수 있는데, 이것은 대상물간의 견제작용을 대상물간의 상화(조화와 균형)를 이루기 위한 상호보완적 견지에서 보게될 때앞에서 칸딘스키가 언급한 “총합은 구성요소들이 균형을 잡는데 빠져 있는 부분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론 즉, “1+1=완성”이라는 개념으로서 해석되어 진다. 다음 단락의 그림은 두 이론을 비교한 것이다.

3-3. 두이론의 비교



칸딘스키 이론



음양오행 이론 -상극작용-

4. 결론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때 칸딘스키의 형과색에 관한 이론과 음양오행의 형과색에 대한 이론이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다른 문화적 환경에서 발견되고 경험되어진 사상이나 예술론이지만 이처럼 형태와 색채가 일치하고 있음을 보게 될 때 여기에는 어떠한 자연적인 원리가 있음을 짐작하게 된다.



(1+1=완성)